

# 남녀 대학생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태도가 진로 계획에 미치는 영향

황매향(黃梅香)\*

조윤진(趙淵晉)\*\*

조효진(曹孝珍)\*\*\*

방지원(方智嫻)\*\*\*\*

##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태도 및 계획을 살펴보고, 이러한 태도가 어떠한 경험과 환경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대학생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고자, 서울시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7명을 6개 집단으로 나누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 양립에 대한 태도',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계획', '계획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이라는 4개의 영역과 그에 따른 17개의 하위 범주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남녀 대학생들은 결혼 이후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가정 생활이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진로 선택 및 결정의 과정에서는 일과 가정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거나, 일-가족을 양립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의 진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 모두 강한 진로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태도 및 계획은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 및 교육적 접근에서 가지는 시사점과 제한점,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진로계획, 일-가족 양립, CQR, 포커스그룹

## I. 서론

한 개인이 일생에 거쳐 달성해야 할 여러 발달 과업 중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성인 초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특히 대학 시기는 가족 내에서의 의존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는 특별한 시간으로 대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로 탐색 및 결정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Arnett, 2002). 개인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를 통합하여 각자의 직업적 자기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것은 이 시기의 주요한 목표로(O'Hara & Tiedeman, 1959), 이 시기에 형성된 직업적 정체성은 성인기의 직업 만족과 적응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인기 진로를 준비하고 적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Stringer, Kerpelman, & Skorikov, 2012).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직업세계와 결혼을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일과 결혼을 통해 꾸리게 될 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병행함으로써 자신이 겪게 될 다중역할에 대해 예상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반적 삶을 구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김양희, 유성경, 임지숙, 2011).

과거에는 일을 통한 사회적 성취가 남성에 국한된 일이었으나 급격하게 변화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려는 여성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진로 결정과 취업 준비는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2011년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녀 각각 62.9%와 62.6%로 성별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고(통계청, 2011),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여대생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발달시켜 나가고자 하는 강한 진로 지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김정숙, 2006; 신선미, 정경아, 구정화, 2008), 결혼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당연히 하거나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양적 지표들은 이러한 선호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 준다. 2012년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 통계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54세 이하의 기혼 여성 중 30대 경력 단절 여성은 57.1%로 연령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력단절의 사유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차지하는 비율을 모두 합쳤을 때 96%(통계청, 2013)로 사실상 많은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성인기 생애 사건을 경험하며 겪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회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이 더 이상 남성에 국한된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후 여성의 진로와 관련한 경험은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내적으로는 여성 스스로 지각하는 심리적인 장벽을 경험하며, 외적으로는 생애 주기를 거치면서 겪게 되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일-가족 양립에 대한 갈등 및 경력 단절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 예기된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구

체적인 계획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졸업 후 취업이라는 과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국 대학생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오늘날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 다양한 생애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을 충분한 준비 없이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족을 언제 이룰 것이며,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일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삶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문미란, 2003; 우영지, 2008; Steffy & Jones, 1988) 진로 장벽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그에 따른 현실적 대처나 준비 없이 마주하게 되는 갈등은 개인을 혼란과 죄책감에 빠뜨릴 뿐 아니라 원치 않는 여성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단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는 동등한 수준의 직업이나 직장으로의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 진로와 관련된 이러한 어려움들은 최근 여성들의 결혼기피, 저 출산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숙정, 유지현, 2009).

이러한 현실 때문에 기존의 다중 역할과 관련된 고찰들은 여성의 진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진로 선택에 있어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고려는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된 과제는 아니다. 여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은 역할 자체에서의 갈등 뿐 아니라 다중 역할을 경험하는 개인과 배우자인 남성이 자신의 일과 가족 역할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주관적 경험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맞벌이가 보편화 되면서 남편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2009년 생활 시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2004년 32분이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5분이 늘어난 37분이었지만, 맞벌이 가정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2004년에 비하여 8분이 감소한 3시간 20분으로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에게 비하여 6.3배의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정 내에서 변화하지 않는 남녀의 역할과 여성의 이중부담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맞벌이 가정이 새로운 형태의 가정은 아니지만 남녀의 일이 점차 유사해지고 남녀의 전통적인 성역할이 점점 통합되어 감에 따라 가정의 형태가 점차 진화해가고 가고 있는 현실에서(Gilbert & Rader, 2008) 일-가족 양립으로 인한 갈등은 더 이상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배우자인 남성을 포함한 가정 내에서, 그리고 나아가 사회에서 분담되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역할의 요구에 대하여 남성들은 어떠한 인식 변화를 이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남성에게도 다른 방식의 어려움으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 역시 결혼 후 변화되는 삶의 맥락 안에서의 일과 가족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시기에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여성 위주의 일-가족 논의에서 확장하여 새로운 환경 적응이 요구되는 남성에게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이재인, 2010; 채화영, 2012), 남녀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았고, 여대생의 진로 장벽 인식, 여고생의 진로 장벽 인식, 여대생의 진로 태도 등 여성의 진로에 국한하여 일-가족 양립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나(김정숙, 2006; 김진숙, 이종희, 2003; 임선희, 전해영, 2004; 최윤정, 김계현, 2009), 전반적인 진로 장벽 중 일부분으로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갈등을 다루고 있었다(손은령, 2002; 하정, 유성경,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을 포함한 대학생들의 일-가족 양립과 진로를 연결 짓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방법론적으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관심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직업세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과 진로 계획, 성차 인식 등을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언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에 초점을 두어 첫째, 남녀 대학생이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일-가족 양립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고려하고 있는지 둘째, 일-가족 양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셋째, 일-가족 양립에 대한 태도와 계획은 어떠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탐색적인 접근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남녀의 일-가족 양립과 다중역할 갈등

다중역할이라는 개념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생겨난 역할 갈등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지금까지의 다중역할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여성에 치중되어 이루어져왔다. 일과 가족에서의 다중역할과 관련된 연구에서 남성이 배제되어 왔던 이유 중 하나는 직장과 가족 간 경계의 허용성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남성은 자신의 일로 인해 가족에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가족생활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하여 일-가족 양립에 따른 큰 갈등이 없이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경혜, 1998; Pleck, 1997). Betz(2006)는 역사적으로 남녀의 관계에서 자녀, 가정에 대한 책임은 남성보다 여성의 몫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어머니'인지 '전업 어머니'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은 자녀의 일차적 양육자로 고려되어왔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달리 남성의 경우 자연스럽게 직업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결코 '일하는 아빠'라고 불리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남녀 간 진로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사회 문화적으로 남녀에게 각자 다르게 기대되는 성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성역할 고정

관념은 여성의 진로 발달과 직업 선택에 가장 기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Betz, 1994),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가족, 두 가지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DiBenedetto & Tittle, 1990), 일과 가사 책임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고정적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의 많은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젊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기혼 여성은 가정과 노동시장 내 성별분업과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주부로서의 가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하게 되거나 '일이나 가정이나'라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개인이 가정과 진로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다중역할 갈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들은 결혼 이후 일-가족 양립으로 인한 갈등이 높아지는데 비하여 남성들의 일-가족 갈등은 결혼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Butler et al., 2005; Keene & Quadagno, 2004).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듯 남성의 가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변화하였고, 직장과 가족을 분리된 영역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적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남성의 진로 설계에 있어서도 다중역할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미래, 2013). 실제로 가정에서의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강기숙, 한유미, 2010; 한영숙, 2006), 가정 내에서도 배우자인 남성의 지지, 가사분담을 등이 기혼 여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확인되고 있다(강혜련, 최서연, 2001; 이윤석, 2010; 조윤진, 유성경, 2012). 맞벌이 여성 집단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여성이 경험하는 역할 갈등이 적으며(Aryee, 1992; Byron, 2005), 기혼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배우자인 남편의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정서적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응답하여(양소남, 2011) 배우자의 정서적지지 뿐 아니라 집안일, 자녀양육, 경제적 도움 등 실제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도구적지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Parasuraman, Greenhaus, & Granose, 1992). 또한 남편이 아내의 일을 지지하는 태도가 강할수록 여성이 결혼 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박경숙, 김영혜, 2003)는 배우자의 지지가 기혼 취업 여성의 경력 지속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 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다중역할 갈등은 개인의 직업적 성취를 위해 일과 가족을 병행하게 되는 남성과 여성의 진로 발달 구조에 중요한 차이를 야기하고 있으며(Bem, 1975; Betz & Fitzgerald, 1983),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은 여성 개인의 선택만으로 국한지어 바라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남성들

이 일-가족 양립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자신의 진로 계획에 있어서도 가사 및 양육에 대한 고려를 해 나가려는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일과 가족의 병행에서 남녀 모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변화로 인해 두 영역 간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가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새로운 긴장과 일-가족 갈등을 느낄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일-가족 갈등이 배우자 역할이나 부모 역할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저하시키며 이러한 갈등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도 있어(Duxbury & Higgins, 1991) 남성들의 잠재된 긴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남성들에게 일-가족 갈등이 점차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과도기적 상황에서(배지혜, 2001)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기 전 남성의 일과 가족의 가치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이미래, 2013), 남성 또한 진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현실적인 진로 장벽에 대한 고려와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진로장벽과 다중역할 현실성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란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 목표 실천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인 요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손은령, 2002), 현실적인 진로 장벽에 대한 인식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진로 결정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영, 2001; 손은령, 2002). 진로장벽은 진로 계획이나 진로 목표 실현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상담 과정에서 진로 장벽들을 어느 정도로 지각하고 있으며, 어떤 대처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등을 중요한 상담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손은령, 김계현, 2002).

미국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장벽에 대한 인식과 성차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가족관련 문제들을 자신의 진로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Luzzo, 1996), Swanson과 Tokar(1991)의 연구에서도 남녀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 장벽의 유형은 유사했으나, 여학생들의 경우 차별과 자녀양육을 더 큰 장벽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일반계 여고생들이 지각하는 진학 및 진로장벽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여고생들이 지각한 진학 장벽의 특징을 확인한 김진숙과 이종희(2003)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 내지는 갈등과 관련된 문항이 가장 낮게 나타나 국외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여성들이 실제 성별에 따른 차별 내지는 갈등을 외국에 비해 적게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여고생들이 진로 계획에 대한 소극적이고 협소한 태도로 인해 이들이 외적 현실의 문제나 제약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 장벽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국내연구에서는(손은령, 김계현, 2002) 여대생들이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장벽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진로 장벽으로서

일-가족 양립을 처음으로 고려하게 되는 대학생 시기에 다중역할의 인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 해준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하여 일-가족 갈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이재인, 2010), 남대생의 경우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장벽의 인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가정 내 남성의 인식 변화가 느린 현실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적 개입은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여성들이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진로 장벽을 인식하더라도 일-가족 다중역할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획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 바(김양희, 유성경, 임지숙, 2011)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진로계획 수행의 어려움이나 진로 포부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행계획을 세우는 것을 통해 진로 결정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진로와 가정의 역할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방식임을 인식하고, 그 결과 가정과 진로 역할 간 중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다중역할 현실성(multiple role realism)을 갖는다고 말한다(Weitzman, 1994). 다중역할 참여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일과 가정의 문제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계획만을 세우는 것은 다중역할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비현실적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문미란, 2003; McCracken & Weitzman, 1997).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가 현실적이고 준비가 잘 되어있는 사람일수록 다중역할 갈등으로 인한 진로 장벽이 감소하고(우영지, 2008), 다중역할을 위해 어떤 진로 계획을 세워야 할지 잘 알고 있으며, 갈등이 예상되는 생활 방식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진로를 망설임 없이 잘 결정할 수 있다(문미란, 2003; 양은주, 한종철, 1999). 이러한 결과들은 미래의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단순히 직업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생애 사건을 경험하며 증가하게 되는 가정에서의 역할과 직업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균형을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려 깊은 진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중역할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다중역할 계획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진로에 대한 자기관, 태도 및 가치관, 성격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과 배우자지, 부모지, 직장 분위기 등과 같은 외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밝혀졌다. 특히 여성의 진로태도와 취업 경험은 배우자인 남편의 태도와 주변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 개인이 환경을 지각하는 방식이 개인적 대처와 정서경험, 나아가 일-가족 양립의 경험에까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Greenhaus & Powell, 2006; Grywacz & Marks, 2000; Thomas & Ganster, 1995; Rotondo & Kincaid, 2008; 조윤진, 유성경, 2012재인용), 일-가족 양립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야 할 미래의 남편, 즉 남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대학생들이 가정으로부터 받은 일-가족 양립에 대한 경험과 그들의 지각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남녀 대학생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가진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태도와 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고, 일-가족 양립 태도에 따라 가지게 되는 진로 계획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남녀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가족 양립 관련 진로 태도와 계획은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다중역할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잘 지각하고 이를 예상하여, 진로 선택 및 결정에 있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 상담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Ⅲ. 방 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 참여자는 서울 소재의 5개 대학(4년제 대학) 재학생 27명으로 여 13명, 남 14명이다. 진로와 관련한 수업을 수강하거나, 진로 집단에 참여, 또는 진로 관련 상담을 받고 있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진로와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거나 진로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더 숙고하고 성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진로에 대한 태도 및 계획을 탐색적으로 보고자 하는 이 연구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그룹원들은 어느 정도의 동질성이 확보될 것이 권유되기 때문에 (Krueger, & Casey, 2009), 아직 진로계획이 상대적으로 덜 분명한 1~3학년의 저학년그룹과 4학년으로 구성된 고학년 그룹으로 구별하여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학년을 기준으로 구별된 두 그룹은 남, 여, 혼성의 6개 그룹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그룹에 포함된 성별 구성을 보면, 여학생 13명, 남학생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성별과 전공, 학년을 포함하는 연구대상자 인적사항은 <표1>에 제시되었다.

<표1> 연구 대상자 인적 사항

사례 번호	성별	학과	학년	사례 번호	성별	학과	학년
1	여	국제학부	2	14	남	응용통계학과	2
2	여	환경공학과	2	15	남	경제학과	2
3	여	심리학과	2	16	남	경제학과	2
4	여	영어영문학과	4	17	남	법학과	4



5	여	정치외교학과	4	18	남	법학과	4
6	여	기독교학과	2	19	남	응용통계학과	2
7	여	사학과	3	20	남	영어영문학과	2
8	여	전자공학	2	21	남	경영학과	1
9	여	중어중문학과	4	22	남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3
10	여	화학나노학과	4	23	남	화학과	4
11	여	법학과	4	24	남	경영학과	4
12	여	법학과	4	25	남	전기전자공학과	4
13	여	경영학과	4	26	남	생명과학과	4
				27	남	건축학과	4

##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들의 일-가족 양립과 진로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는 의견들을 수집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소수의 참여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나누고, 그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Krueger, & Casey, 2009). 대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일-가족 양립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개별적인 면담에 비해 비슷한 환경과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선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생들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목적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진행될 인터뷰 질문을 참여자들에게 미리 이메일로 발송하여 질문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고 인터뷰 시 더욱 풍부한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 1) 연구 도구

인터뷰에서 사용된 질문들은 사전 예비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되었다. 사전 예비연구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과 후속형 질문을 사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렇게 진행된 예비인터뷰 내용을 축어록으로 만들고, 연구자들이 자료를 평정하고 합의하는 분석의 과정을 거친 후, 교육학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총 7개의 최종 질문을 확정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질문에는 “결혼 후에 일에 대한 계획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결혼 후 가사일과 육아, 직장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

요?” 등과 같은 문항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2>에 제시하였다. 인터뷰에 사용된 문항은 남녀 대학생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현재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인해 생길 수 있는 갈등이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Koelman, Greenhaus & Connolly, 1983)을 바탕으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가족 양립에 대한 예상과 그에 따른 계획, 그리고 그러한 태도와 계획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확인하는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실제 인터뷰에서는 후속 질문들을 제시하며 더욱 심층적인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 <표2> 질문내용

#### 질 문 내 용

1. 진로를 계획하는데 있어 일과 결혼을 함께 고려하고 있나요?
2. 결혼 후에 일에 대한 계획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3. 일-가족 양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4. 주변인의 태도, 가치관이 내가 일-가족 양립에 관한 계획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5. 내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있어서 배우자의 태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6. 결혼 후 가사와 육아, 직장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7. 결혼과 일에 있어서 남녀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2) 자료수집절차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년의 참여자를 모집한 후, 총 6개의 집단에 대하여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집단은 5명에서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인터뷰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들은 인터뷰 시작 전 연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인터뷰 질문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 받은 후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예비연구를 통해 구성된 인터뷰 질문을 이메일을 통해 미리 안내 받았으며, 미리 안내 받은 질문 외에 추가적인 후속 질문을 이어나가는 반구조화 된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모든 인터뷰는 녹음기로 녹음 되었고 인터뷰 내용은 추후에 컴퓨터로 전사되었다.

## 3. 자료 분석

이 연구는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가 개발한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사용하였다. CQR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담화를 사용하며, 귀납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자료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 방법이다. CQR에서는 주관적이거나 편향된 관점으로 자료를 해석 하는 것을 피하고자 다수의 평정자와 감수자 간의 반복적 의사교환을 통한 합의를 강조한다. CQR은 연구 대상의 관점을 분석하여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발견지향적인 방법(Hill et al, 1997)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태도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CQR이 다른 질적 방법과 비교되는 특징은 표집의 대표성을 보여주기 위해 응답빈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Hill et al., 1997). 사례 간 유사성을 확인하고 빈도를 통해 그 표집이 가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상담심리전공의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1명으로 이루어진 평정자들과 교육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의 감수자가 참여하였다. 평정에 참여한 박사과정 2인은 한 학기 이상의 질적 연구 방법 관련 수업을 수강하였고, 모든 평정자들은 CQR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본격적인 평정 작업 전에 각 평정자가 편향 없이 개방적으로 분석에 참여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특성 및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였고, 분석 과정에서 판단중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과정은 감수자에 의해 감수되었으며, 감수자는 평정 팀이 진행한 영역 코딩, 중심 개념 코딩, 교차 분석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정 팀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정 팀과 감수자 사이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반복적인 논의를 지속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평정 팀 구성원들이 진행된 모든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축어록을 읽고 유사한 내용들을 묶어 영역(domain)을 분류하였다. 영역은 유사한 자료를 묶는 데 사용되는 틀이며, 각 연구자들이 부호화 한 영역을 평정자들이 함께 모여 분석하며, 수정, 첨가, 삭제해 가는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 평정 팀 내에서 합의된 영역은 감수자에게 감수를 받아 적절성을 검토 받았다. 이후 각 응답에 대한 요약반응(Core Idea)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각 영역과 관련된 각 그룹 참여자들의 응답의 핵심을 명료화 한 것이다(Hill et. al., 1997). 이때 평정 팀의 주관적인 추론을 배제하기 위해 각 평정자는 응답자의 반응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자 요약반응을 작성한 후 합의과정을 거쳤다. 평정 팀은 요약반응의 유사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토론을 계속하였고,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 받은 요약반응들은 유사한 내용들 끼리 묶는 교차분석(Cross Analysis)를 통해 범주가 개발 되었다. 교차 분석을 통해 추출된 범주들은 Hill, Thompson, Williams(1997)의 제안에 따라, 모든 사례에서 동일하게 보고된 범주를 일반적(General), 사례의 50%이상 나타나는 범주를 전형적인(Typical), 50% 미만으로 나타난 범주를 변동적(Variant) 범주로 분류하였다.

교차분석 작업을 완성한 후 다시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으며, 감수자는 각 영역의 범주가 적절

한지, 핵심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 검토한 후 본 평정 팀과 토의 끝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범주들을 합치고, 다른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주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감수자와 평정 팀 간의 의견이 합의 될 때까지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 IV. 결 과

합의와 감수의 분석 과정을 거쳐 대학생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태도와 진로 계획에 대한 내용에서는 '영역1: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진로 장벽인식', '영역2: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계획', '영역3: 계획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영역4: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이라는 4개의 영역이 추출되었다. '영역4'는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계획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영역3'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응답빈도를 분석하였을 때 참여자들에게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을 포함하는 내용이 '전형적'으로 확인되었고, 영역3이 일-가족 양립에 관한 계획에 영향을 준 개인 내적인 요인이라면 영역4는 외적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이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어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각 범주에 대한 응답 빈도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표3>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자 면접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표3> 대학생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태도가 진로 계획에 미치는 영향

영역	범주	응답 빈도(명)		
		전체(27)	남(14)	여(13)
영역1. 일-가족 양립에 대한 태도	1. 가정이 일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함	변동적(13)	전형적(8)	변동적(5)
	2. 일과 가정은 별개의 것	변동적(11)	변동적(5)	변동적(6)
	3. 진로 계획 시 결혼을 고려해 본 적이 없음	변동적(10)	전형적(7)	변동적(3)
영역2.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계획	1. 결혼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전형적(20)	전형적(10)	전형적(10)
	2. 진로에 대한 나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배우자를 기대함	변동적(10)	0	전형적(10)
	3. 배우자인 여성이 함께 맞벌이하기를 원함	변동적(10)	전형적(10)	0
	4. 출산 후에는 가정 때문에 일을 그만 둘 것이라고 예상 함	변동적(6)	0	변동적(6)
	5. 양육을 위해선 배우자 중 한 쪽이 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함	변동적(6)	변동적(4)	변동적(2)
	6. 일-가정 양립을 고려하여 직장을 선택할 예정	변동적(1)	0	변동적(1)

영역3. 계획 및 태도에 영 향을 미친 요인	1.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	전행적(19)	전행적(7)	전행적(12)
	2. 결혼 후 생기는 책임과 부양에 대한 의무감	전행적(16)	전행적(10)	변동적(6)
	3. 결혼 후 일을 포기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	변동적(9)	변동적(5)	변동적(4)
	4. 사회적 기여에 대한 바램	변동적(2)	변동적(1)	변동적(1)
영역4. 부모님으 로부터의 영향	1.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일을 통한 여성 의 사회적 성취의 중요성을 깨달음	변동적(6)	변동적(2)	변동적(4)
	2. 부모님의 가사 분담 경험을 보며, 일-가족 양립 시 여성의 어려움을 예상	변동적(5)	변동적(1)	변동적(4)
	3. 부모님이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함을 강 조하심	변동적(5)	0	변동적(5)
	4.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돌봄의 긍·부정적 영향	변동적(4)	변동적(1)	변동적(3)

## 1. 영역1: 일-가족 양립에 대한 태도

대학생들이 졸업, 취업, 결혼, 임신 및 출산 등의 생애 사건을 거치면서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진로 장벽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 선택의 과정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 하였다. 확인 결과 가정이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일과 가정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진로 계획 시 결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한편, 일이 가정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없었다.

### 1.1. 가정이 일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함

가정을 갖게 되면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범주에 포함된 응답자들은 일과 가정은 서로 방해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혼 때문에 진로를 정하는 것에 엄매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결혼은 일의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고 유지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저는 딱히 제가 원하는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정을 갖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환상 같은 것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하고 싶고, 제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싶은 게 커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 가부장적인 성향이 남아 있다 보니까 (결혼 후에는)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는데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내가 가정

에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례2, 환경공학과 2학년 여)

## 1.2. 일과 가정은 별개의 것

이 범주는 일과 가정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포함한다. 일-가족 양립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누군가와 이야기 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일과 가정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갈등관계로 인식되지 않으며, 일과 가정을 연결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냥 간단히 이야기 하면 일은 결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하진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은 별로 개의치 않아요. (사례17, 법학과 4학년 남)

## 1.3. 진로 계획 시 결혼을 고려해 본 적이 없음

이 범주는 가정을 꾸리는 것은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하여 일-가족 양립을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일과 가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범주 2와 같은 맥락이지만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결혼을 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한 염두나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범주 2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범주에 포함된 대부분은 결혼은 아직 동떨어지고 막연한 것이며, 미래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고려는 결혼할 때 쯤 생각할 일이며, 나중에 생각해서 조율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내가 아직 결혼할 몇 년도에 몇 살에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거와 동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일을 할 때 일이랑 결혼이랑 같이 놓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여건이 맞으면 결혼을 하는 거지. 그냥 그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 때 여건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례 15, 경제학과 2학년 남)

사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니깐요. 지금의 선택(일)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 결혼과 가정의 일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례25, 전기전자공학과 4학년 남)

## 2. 영역2: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계획

대학생들이 미래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과 관련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는 영역이다. 응답자들은 일-가족 양립에 있어서 일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혼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사례를 포함하는 범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진로에 대한 나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배우자를 기대한다는 범주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여학생이었으며, 반면 남학생의 경우 배우자인 여성이 함께 맞벌이하기를 원한다는 범주가 확인되었다. 네 번째 범주는 출산 후에는 가정 때문에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예상하는 범주였으며, 그 외에 양육을 위해서 배우자 중 한 쪽이 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일-가족 양립을 고려하여 직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2.1. 결혼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일-가족 양립에 있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해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응답을 포함하는 범주이다. 특히 양육이나 육아로 인해 일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거나 자신의 일에서 만족감을 충분히 느낀 후 출산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아 결혼 이후 임신 및 출산, 양육에 의해 일이 방해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정에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나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의 구체적인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육아 문제는 후순위예요. 저는 좀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해서 그 사람(배우자)한테 전가할지도 몰라요. (사례16, 경제학과 2학년 남)

일이 결혼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혼으로 일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사례26, 생명과학과 4학년 남)

## 2.2. 진로에 대한 나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배우자를 기대함

자신의 일-가족 양립 계획에 대해 배우자가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낼 것으로 기대하며, 그렇지 않은 배우자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막연하고도 비현실적인 기대를 보이는 범주이다. 여학생에게서만 확인되었으며, 응답자들은 맞벌이 혹은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며 어느 한쪽을 강요하는 배우자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가정을 형성하겠다고 하여 결혼에 대해 다소 제한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저는 만약 배우자가 너는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 애를 키워라 이렇게 한다면 일단 그 가정 자체

를 형성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참견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고, 정말 저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굳이 저한테 어떤 거를 요구하는 것은 뭐 일을 하라든지 말라든지 전 싫을 것 같고, 그냥 저를 존중했으면 좋겠어요.(사례1, 국제학부 2학년 여)

### 2.3. 배우자인 여성이 함께 맞벌이하기를 원함

결혼 후 배우자인 여성이 경제적 책임을 함께하며 맞벌이하기를 기대한다는 응답을 포함하는 범주로 남학생에게서만 확인되었다. 맞벌이를 희망하는 배우자를 만나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답하거나, 배우자인 여성도 반드시 일을 하여 맞벌이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저 같은 경우 맞벌이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만나는 여자가 '일하기 싫다'고 하면 별로 흥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 좋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저는 만나서 결혼을 하던 간에 경제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사람의 경제는 그 사람의 경제고, 제 경제는 제 경제고, 제가 그 사람을 부양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돈이 많아서 일 안하겠다고 그러면 뭐 말리진 않겠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솔직히 매력은 없을 것 같아요. (사례23, 화학과 4학년 남)

### 2.4. 출산 후에는 가정 때문에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예상함

출산 후에는 가정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을 포함하고 있다. 여학생에게서만 확인되었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키우고 싶지 않거나 사회 문화적 배경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육아나 가정이 우선시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을 포함 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일보다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답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출산 후에는 가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의미가 더 커질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신을 하는건 여자잖아요. 10개월 동안 아이를 떠안고 있다가 낳았을 때, 또 모유수유를 하든 어쨌든 간에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 끈끈한 느낌은 여자가 강할 것 같아요. (사례 1, 국제학부 2학년 여)

나중에 가정이 생기면 아이는 제 손으로 키우고 싶거든요. 어린이집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보모한테 맡긴다든지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직업을 가진 다음에 만약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고위직에 올라가면 회사에 헌신하고 시간적으로도 되게 많이 회사에 내야 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거의 진짜 남한테 맡기는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회사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례2, 환경공학과 2학년 여)



## 2.5. 양육을 위해선 배우자 중 한 쪽이 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함

임신,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쪽이 일을 포기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범주이다. 남학생의 경우 양육 때문에 한 명이 직업을 포기할 때에는 경제력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하였다.

애를 낳으면 그 때는 상대방과 타협을 하겠죠. 맞벌이에서 (육아로 인해) 한명이 그만둘 때, 많이 버는 사람이 남아야죠. (사례19, 응용통계학과 2학년 남)

만약에 결혼을 해서 둘 다 직업이 있게 된다면 어느 한 쪽이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고 싶으면 봉급이 더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직업을 갖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례22,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3학년 남)

## 2.6. 일-가족 양립을 고려하여 직장을 선택할 예정

여학생 한 사례에서 확인된 범주이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고려를 위해 복지와 지원이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가족 양립에 따르는 장벽을 미리 인식하고 진로 선택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하고자 하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만 하고 아이가 없을 때는 (진로가) 덜 바뀔 것 같은데, 자녀가 생기면 엄청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도 직장을 찾을 때 외국계 기업을 많이 보는 이유가 복지 측면에서 그리고 출산 그런걸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긴 한데 진짜 아이를 가지면 더 그렇게 변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확실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애착관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초반에는 일을 좀 줄이고 그걸 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일단 찾고 싶어요. (사례4, 영어영문학과 4학년 여)

## 3. 영역 3: 계획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대학생들이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계획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 ‘결혼 후 생기는 책임과 부양에 대한 의무감’, ‘결혼 후 일을 포기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회적 기여에 대한 바람’이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결혼 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일-가족 양립에 대

해 계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언급하였다. 참여자들은 일을 위해 출산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출산을 하고 나면 육아를 위해 맞벌이에 대한 조율과 타협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구체적인 계획 보다는 육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응답하거나 양육으로 인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응답을 하여 막연하게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를 낳게 되면 저는 누구한테 맡겨서 키우고 싶기는 또 싫은데, 우리나라 현실상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자가 키우는 게 보편화 되어 있잖아요. 아기를 기르려고 남자가 일을 그만 두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여자가 그런 경우는 많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사례12, 법학과 4학년 여)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인생에 되게 큰 이벤트잖아요. 이벤트라고 하긴 좀 그런데(웃음) 큰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리고 나의 인생에 또 다른 개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게끔 내가 해야 되지, 그걸 바꾸는 걸 막을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배우자의 희생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또 저희들끼리 알아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사례5, 정치외교학과 4학년 여)

### 3.2. 결혼 후 생기는 책임과 부양에 대한 의무감

결혼을 하여 가정이 생기면 지금까지의 자유를 포기하고, 가족 부양의 짐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으로, 남성 응답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응답을 한 참여자들은 생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이나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경제적 부양의 의무 때문에 일의 변화나 선택에 대한 자유가 박탈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변화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일하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맨날 육하하면서도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버지들이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생각이 변화 되도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된단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부모님 도움 없이 독립을 할 수 있다든지 그 때 까지는 변화에 대한 자유가 박탈당하고 오히려 그 뒤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14, 응용통계학과 2학년 남)

### 3.3. 결혼 후 일을 포기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 범주에 포함된 응답자들은 일을 계속 하지 않는 것이 여성에게는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생각이 일-가족 양립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을 한 참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여성이 피해를 보거나 가정에 종속되어 조종당하거나 통제당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응답자가 유사하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후 일을 그만둔 어머니의 경험을 보며 일을 지속하지 않는 것이 여성에게는 부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자가 부담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좀, 여자가 더 가정적인 면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고,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가정에 대해서 종속적이게 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돼요. 여자한테는.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가정을 갖는다는 의미라면, 여자한테는 내가 또 떠안아야 할 짐이 하나 생기나? 이런 느낌인 거 같아요(사례2, 환경공학과 2학년 여)

맞벌이를 안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게 자신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신한테 penalty가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또 자신이 사회적으로 '내가 집안에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는 애들 보느라 사회도 못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것도 주부의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사례 18, 법학과 4학년 남)

### 3.4. 사회적 기여에 대한 바람

교육 받은 여성들이 가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갖는 것이 사회적인 인력활용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라고 그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퇴연령도 몇 년 늘어나긴 했는데 사람들은 더 늙어가고만 있고,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가고 있고, 지금 더 어려가지고 새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될 사람은 없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유효하게 먹힐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늙은 사람들한테, 은퇴 연령을 더 푸는 것 이외에도, 여성들을, 아직 전업주부 하시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실제 고용 인력으로 끌어 들이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맞벌이 하는 게 맞지 않나(사례15, 경제학과 2학년 남)

#### 4. 영역 4: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

이 영역에서는 일-가족 양립 태도에 있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맞벌이 가족에서 자란 경우, 부모님의 가사분담의 정도가 일-가족 양립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경우, 어머니가 일을 안 하시는 경우가 부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성취가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경우, 일하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돌봄의 정도가 영향을 준 사례가 이 영역에 포함되었다.

##### 4.1.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일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성취의 중요성을 깨달음

맞벌이를 하시는 어머니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맞벌이를 하지 않으시는 어머니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통하여 여성도 일을 지속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이 범주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어머니가 일을 그만 둔 것을 후회하시거나, 의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반응들이 포함되었다.

어머니가 집에 있는 건 좋은데, 그냥 뭔가 자기 삶이 없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도 있어요. 그니까, 서로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례6, 기독교학과 2학년 여)

일이 있어야지 좀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좀 덜 외로운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일을 그만두시고 전업주부를 하시는데도 되게 많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맞벌이가 좀 더 미래에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사례1, 국제학부 2학년 여)

##### 4.2. 부모님의 가사 분담 경험을 보며, 일-가족 양립 시 여성의 어려움을 예상

부모님의 가사 분담 경험을 보며, 일-가족 양립 시 여성의 어려움을 예상한다는 응답으로 주로 여학생에게서 나타났다. 이 영역에는 가사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맞벌이하시는 어머니가 가사 일을 도맡아하시면서 힘들어한다거나, 일하시느라 바쁘셨던 아빠가 가정 일에 소홀하셨기 때문에 겪는 어머니의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

밤늦었는데, 빨래가 세탁기는 돌아가고 있고, 아빠는 이미 방에 가서 자러 가고. 어머니는 그냥 빨래하러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같이 맞벌이를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는 옛날엔 혼자서 일하는데 왜 안 도와주냐 화도 내셨는데 이제는 또 그냥 무덤덤하게 혼자서 하더라고요. (사례21, 경영학과 1학년 남)

### 4.3. 부모님이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함을 강조하심

부모님께서 일-가족 양립을 고려한 직업을 여학생들에게 권유함으로써, 일을 지속할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일-가족 양립 상황에서도 일을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사례로 모두 여학생이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를 하신 게 ‘아, 너는 무슨 일을 할 거지? 너는 뭘 하고 싶니?’ 이러면서 막 항상 저에게 꿈을 항상 물어보셨어요. 장래희망으로 뭘 적으면 제 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물론 관심이 되게 긍정적인 관심도 있고 ‘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관심도 있으셨지만 어쨌든 저는 항상 꿈을 가지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1번이 말했던 것처럼 장래희망欄은 항상 뭔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이에 대한 미안함은 있지만 제 인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사례5, 정치외교학과 4학년 여)

### 4.4.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돌봄의 긍·부정적 영향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의 삶을 보며 자신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계획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으로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으로 인해 자신이 성장과정에서 보살핌을 잘 받지 못했다고 인식하여 자신은 출산 후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거나,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이지만, 충분한 돌봄을 받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것으로 계획하는 것 등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맞벌이를 하시는 어머니 아빠랑 많이 친하지 않은 편이어서, 그런 게 좀 서운했던 거 같아요.(사례2, 환경공학과 2학년 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4학년 때 집에 혼자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10년 동안 어머니가 무진장 사랑을 해줬고,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아, 어머니가 일을 갔구나.’ 라는 생각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사례4, 영어영문학과 4학년 여)

##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가는 시기에 있는 남녀 대학생의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태도 및 계획을 확인하고, 이러한 태도가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경험과 환경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7명을 대상으로 6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합의적 질적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영역별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으로, 연구에 참여한 남녀 대학생들은 가정을 갖게 되면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일과 가정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진로 계획 시 이 둘을 연결 지어 고려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대학생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태도나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정도만을 막연하게 인식할 뿐 현재로서는 일을 갖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여, 다중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일부 여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 결혼, 출산 및 육아를 미리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현실적인 장벽에 대한 고려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이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남학생에게서도 확인되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가정을 갖게 되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증가되어 개인적인 진로선택 및 변경이 어려우며, 지금까지의 자유를 포기하고, 가족 부양의 짐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가사와 육아 등 여학생들이 방해라고 인식하는 것들과는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남녀 모두에서 확인된 일-가족 갈등의 관점(Edwards & Rothbard, 2000)은 개인이 역할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개인에게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서로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인 일-가족 향상 관점에서는 일과 가족에서의 역할 수행은 물리적, 심리적 자원을 증대시켜,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한다(Greenhaus & Powell, 2006). 일과 가족 안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기타 재정적인 자원을 보다 풍부하게 제공받게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김수정 외, 2012; Barnett & Hyde, 2001; Greenhaus & Powell, 2006), 대학생들에게 일-가족 양립에 대한 다차원적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진로 결정 과정을 보다 적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영역은 일-가족 양립 계획에 대한 것으로, 남녀 참여자 모두에서 결혼 이후에도 자신의 일을 계속 할 것이며, 결혼으로 인해 일을 줄이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일부 남학생의 경우 배우자인 여성이 함께 맞벌이하기를 희망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양육을 위해서는 배우자인 여성이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남학생들이 경제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에는 민감하지만 가정에서의 가사나 양육에 대해서는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해서는 전업이건 맞벌이건 나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배우자를 만나겠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바람과 해결책을 드러냈고, 일부 여학생들은 여자들도 남자들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지만 경제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정작 남자인 배우자여야 하며 배우자는 자신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가족의 생계는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를 생계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결혼 후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분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태도, 행동 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별 분업의 체계를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여대생들은 결혼 이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Blau & Ferber, 1992; Peake & Harris, 2002; Reskin & Padavic, 1994), 빈번한 여성들의 경력단절현상은 이러한 여대생들의 비현실적인 기대나 성별 위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상당부분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자 대학생의 직업인식과 직업선택 과정을 확인한 김정숙(2006)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여자 대학생들이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지만, 남편이 아내보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한다고 인식하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잘 벌면 남편의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는 문항 등에서 성별 위계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응답 경향을 보였던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녀 대학생 모두 현대적 부부 상에 대한 모델링이 부족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성장기에 가정에서 학습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주도적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여성의 경우 성장기에 가정에서 주로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학습해 온 것이 고등 교육을 통해 얻은 사회 활동의 역할에서의 주도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 남녀 모두가 만족스러운 일-가족 양립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진로 교육과 함께 남녀 모두 일과 가족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스스로를 능동적인 주체로 상정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 일-가족 양립 계획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남학생들은 결혼 후 생기는 책임과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의 영향이 큰 반면, 여학생들은 주로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앞서 진로선택에 있어 가정보다도 일을 중시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의무감을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드러냈다. 한편, 결혼 후 일을 안 하는 여성들은 가정에 종속된다거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인식하여,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거나 결혼을 통

해 피해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 현대사회의 자아실현, 독립성과 같은 가치들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통합하여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 한다기보다는 한쪽을 외면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로교육과정에서 내면화된 가치관과 실제적인 진로행동에서의 차이를 비교, 점검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부모님의 가사분담경험과 어머니의 일-가족 양립 경험이 대학생들의 일-가족 양립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들의 경우 일과 가족을 병행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며, 자아 성취를 이룬 어머니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를 희망한 반면, 일부 응답자들은 일하는 어머니로 인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겪을 어려움을 예로 들면서 모성의 역할을 일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기도 하였다.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는 어머니 외에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며 결혼과 출산 이후에 남녀 모두가 부모가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모성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모습을 보여,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인식과 역할이 남녀 대학생들의 성역할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직 자신의 일과 가족과의 관계를 갈등의 관계로 바로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을 위해 가족이 희생해야 하거나 가족을 위해 일을 희생해야 한다는 고전적인 갈등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가족 부양 또는 가사 전담이라는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적 관점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비판적 사고나 자기성찰을 통해 재해석되거나 타당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적 관점을 최근 대두되는 일-가족 향상 관점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생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가족 향상 관점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재 대학생들이 내면화한 일-가족 갈등 관점에 대한 건전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일-가족 양립 태도의 형성과정 및 진로결정경험에 대한 대학생들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가족 양립 태도와 진로경험에 내재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현실적인 진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시기면서 직업세계와 결혼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겪게 될 다중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계획하는 것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김양희, 유성경, 임지숙, 2011).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발견된 대학생들의 현재 모습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개입의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다루어 온 대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성격, 적성과 잘 맞는 진로



선택과 준비 뿐만이 아니라, 취업 이후에 곧 맞이하게 될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계획과 고려가 진로계획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에 앞서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태도가 진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는 일-가족 양립 태도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을 모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남성에게도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특성들이 요구되고 있음에도(김지현, 2009), 대부분 다중역할에 대한 문헌들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의 태도 또한 살펴보려고 하였다. 인터뷰에서 몇몇 남학생들은 다중역할 계획에 있어 자신도 직업을 그만두고 육아를 담당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가정 경제는 남성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학생에게도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경험될 수 있다. 이들은 가정을 갖는 것이 자신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을 방해하며, 가정이 자신의 삶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어 과거 가부장적인 성역할 정체감은 여성에게 진로장벽을 갖게 하지만, 남성에게도 의무감과 부담감이라는 또 다른 구속 및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대학생들의 일상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계획과 이후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시키는 진로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남학생들 또한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경험되는 일-가족 양립에 대한 스트레스가 보다 현실화되고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 시기는 진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시기로 직업세계와 결혼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중역할에 대한 응답이 다소 일관적이지 못한 특성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라는 공통된 관심사와 주제를 가진 대학생들이 그룹으로 인터뷰에 참여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 솔직하고 풍부한 주제와 범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남녀 대학생들은 일-가족 양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고찰을 해 보았던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풍부하고 깊은 내용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거나 분석 과정에서 풍부한 주제와 범주가 도출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그만큼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애 사건을 겪으며 변화 될 자신의 사회와 가정 내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진로에 대한 계획을 한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대학생에게 일-가족 양립에 대한 계획이 자신의 진로계획에 포함되어있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진로상담이나 진로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로 인해 대상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일-가족 양립에 대해 생각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자신이 가졌던 태도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는 점에서 집단 토론 방식의 인터뷰가 참여자들의 성찰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별 인터뷰를 통한 심층면접을 통해 더 심도 깊고, 다양한 태도와 관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의 표집은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지역과 배경에 있는 대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학년과 학과의 학생들을 인터뷰 하였으나, 전공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특히 남성이 다수이며 여성이 소수인 이공계 여학생의 경우 다른 전공의 여학생들에 비하여 진로 발달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신선미, 오은진, 2004; 이지연, 오호영, 윤형한, 2007) 전공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혜련, 최서연(2001). 기혼여성 직장-가정 갈등의 예측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 23-42.
- 김수정, 이혜진, 김유진, 박지은, 유성경(2012). 한국 여성의 일-가족 향상 척도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3(2), 561-583.
- 김양희, 유성경, 임지숙(2011). 한국여대생의 진로지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중역할계 획득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2(4), 161-185.
-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정숙(2005). 여자대학생의 직업인식과 직업선택 과정.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김지현(2009). 여자대학생의 여성성역할, 여성성역할갈등과 진로결정간관계에서 의사결정의존성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0(3), 239-256.
- 김진숙, 이종희(2003).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학 장벽. **상담학연구**, 4(4), 773-788.
- 문미란(2003).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다중역할갈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 박경숙, 김영혜(2008).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의 함의. **한국인구학**, 26, 68-90.
- 손은령(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 손은령, 김계현(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21-139.
- 강기숙, 한유미(2010). 영아의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71-80.
- 배지혜(2011). 남성의 '일-가족 갈등' 및 '가족-일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신선미, 오은진(2004). **전문대학의 여성인적자원 개발 현황과 정책과제-이공계열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선미, 정경아, 구정화(2008).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양소남(2011).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전략.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

103-126.

- 양은주, 한종철(1999).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1), 79-94.
- 우영지(2008). 여대생의 개인 특성에 기초한 다중역할계획태도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장벽지각 수준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이숙정, 유지현(2009).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8(2), 35-64.
- 이윤석(2010). 취업한 기혼 남녀의 일과 가족 전이: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의 통합적 접근. **한국인구학**, 33, 1-31.
- 임선희, 전해영(2004). 여자대학생의 직업세계 이행과 진로장벽. **교육사회학연구**, 14(1), 101-120.
- 이미래(2013). 미혼 남성의 가족 건강성과 젠더역할갈등에 따른 일-가족 지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 이재인(2010).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한국 대기업 남성들의 경험과 인식: ㄴ재별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경영학회지**, 14(1), 119-134.
- 이지연, 오호경, 윤행한(2007). 과학기술분야 핵심인력의 경력단계와 인적자원 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윤진, 유성경(2012). 기혼 취업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일-가족 갈등 및 향상의 관계에서 문제-중심 대처와 우울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23-245.
- 채화영(2012).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경험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최윤정, 김계현(2010). 대졸 기혼 직장여성의 개인특성, 환경적지지 및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 완화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 1049-1073.
- 통계청(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에서 2013년 8월 7일 인출.
- 하 정, 유성경(2007). 학업우수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8(4), 1521-1540.
- 한경혜(1998). 중년기 남성의 역할중요도와 일-가족 갈등. **가족과 문화**, 10(2), 93-114.
- 한영숙(2006). 아버지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 Arnett, J. J. (2002). The psychology of globalization. *American Psychologist*, 57, 774-783.
- Aryee, S., Srinivas, E. S., & Tan, H. H. (2005). Rhythms of life: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balance in employed par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

132-146.

- Barnett, R. C., & Hyde, J. S. (2001). Women, men, work and family: An expansionist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6*, 781-796.
-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1*, 624-643.
- Betz, N. E. (1994). Basic issues and concepts in career counseling for women. In W. B. Walsh and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for wome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etz, N. E. (2006). Women's career development: Theories and concepts. In W. B. Walsh and M. Heppner (Eds.), *Career counseling for women* (pp. 45-74). Mahwah, N.J.: Erlbaum.
- Betz, N. E., & Fitzgerald, L. F. (1993). Individuality and diversity: Theory and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343-381.
- Blau, F. D., & Ferber, M. A. (1992).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utler, A. B., Grzywacz, J. G., Bass, B. L., & Linney, K. D. (2005, November). *Predicting work-family balance from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among couples*. Poster presented at the 67th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hoenix, AZ.
- Byron, K. (2005). A meta-analytic review of work-family conflict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169-198.
- Dibendetto, B., & Tittle, C. K. (1990). Gender and adult roles: Role commitment of women and men in a job-family trade-off contex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41-48.
- Duxbury, L., Higgins, S. C., & Lee, C. (1994). Work-family conflict: A comparison by gender, family type,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Family Issues, 15*, 449-466.
- Edwards, J. R., & Rothbard, N. P. (2000). Mechanisms linking work and family: Specif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 and family construc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178-199.
- Gilbert, L. A., & Rader, J. (2008). *Work, family, and dual-earner couple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In J. A. Athanasou & R. V. Esbroec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areer Guidance* (pp. 426-443). New York: Academic Kluwer.
- Greenhaus, J. H., & Powel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72-92.
-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f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 803-855.
- Hill, C. E., Thompson, B. J., Nutt-Williams, E.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Keene, J. R., & Quadagno, J. (2004). Predictors of perceived work-family balance: Gender difference or gender similarity. *Sociological Perspectives*, 47, 1-23.
- Kopelman, R. E., Greenhaus, J. J., & Connoly, T. F. (1983). A model of work, family, and interrole conflict: A construct validation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 198-215.
- Krueger, R. A., & Casey, M. A. (2009).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4th)*. Thousand Oaks, CA: Sage.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4), 239-248.
- McCracken, R. S. & Weitzman, L. M. (1997). Relationship of personal agency, problem-solving appraisal and traditional odd career choice women's attitudes towards multiple role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149-159.
- O'Hara, R. P., & Tiedeman, D. V. (1959) Vocational self concept in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 292-301.
- Parasuraman, S., Greenhaus, J. H., & Granose, C. S. (1992). Role stressors,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among two-career coupl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339-356.
- Peake, A. & Harris, K. L. (2002).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s multiple role planning: The influence of gender, career traditionality, and marriage pla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 405-421.
- Pleck, J. H. (1977). The work 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24, 417-427.
- Reskin, B., & Padavic, I. (1994). *Women and men at work* Thousand Oaks, CA: Sage.
- Rotondo, D. M., & Kincaid, J. F. (2008). Conflict, facilitation, and individual coping styles across the work and family domain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3(5), 484-506.
- Steffy, B. D., & Jones, J. W. (1988). The impact of family and career planning variables on the organizational, career, and community commi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196-212.
- Stringer, K., Kerpelman, J., & Skorikov, V. (2012).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career preparation and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8(5), 1343-1354.
- Swanson, J. L., & Tokar, D. M. (1991).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344-361.

Thomas, L. T., & Ganster, D. C. (1995). Impact of family supportive work variables on work-family conflict and strain: A control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1), 6-15.

Weitzman, L. M.(1994). Multiple-role realism: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process of planning to combine career and family role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3, 15-25.

\* 논문접수 2014년 1월 27일 / 1차 심사 2014년 3월 17일 / 게재승인 2014년 3월 21일

\* 황매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상담과 심리검사>,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학업상담>, <심층직업상담> 등이 있다.

\* E-mail: maehyang@ginue.ac.kr

\* 조윤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aroyjin@naver.com

\* 조효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 E-mail: jeofant@daum.net

\* 방지원: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를 수료하였다.

\* E-mail: wh486jw@gmail.com

## Abstract

## A Qualitative Study on Attitude and Career Planning for Work-family Balance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Hwang, MaeHyang\*

Cho, Yoonjin\*\*

Cho, Hyojin\*\*\*

Bang, Ji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ttitude and plan toward work-family balance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to explore what experiences and environments developed these attitudes. To gain a subjective understanding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ity students, 6 focus groups were conducted with 27 students currently attending a university in Seoul. Common findings were obtained from the interviews by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detail,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expect that family life could be a barrier to their career after marriage, they perceive work and family separately when considering on their future careers. When considering their careers only, they did not consider family at all. While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show strong career seeking directivity, both did not show serious consideration of how they would deal with work-family balance concretely. Furthermore, parental influence was significant in constructing their attitudes and plans towards work-family bal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presented in terms of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al approaches for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Career planning, Work-family balance, CQR, Focus group interview

---

\* First auth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wha Womans University

\*\*\* Ewha Womans University

\*\*\*\* Ewha Womans University